

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78주년 기념 제43회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11월 27일, 28일 양일간 힐튼호텔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. 양일간 연인원 1만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된 행사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.  
<편집자>

### 개회식 - 차용봉 보건복지부 장관 등 내빈 대거 참석

치협 창립 78주년 기념 제43회 종합학술대회 개회식이 지난 11월 27일 오전 9시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백여명의 내외빈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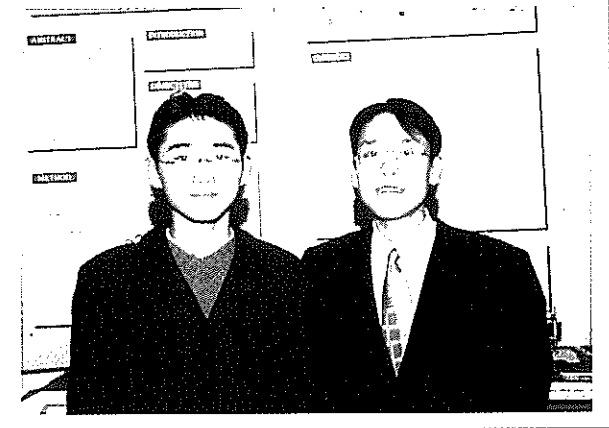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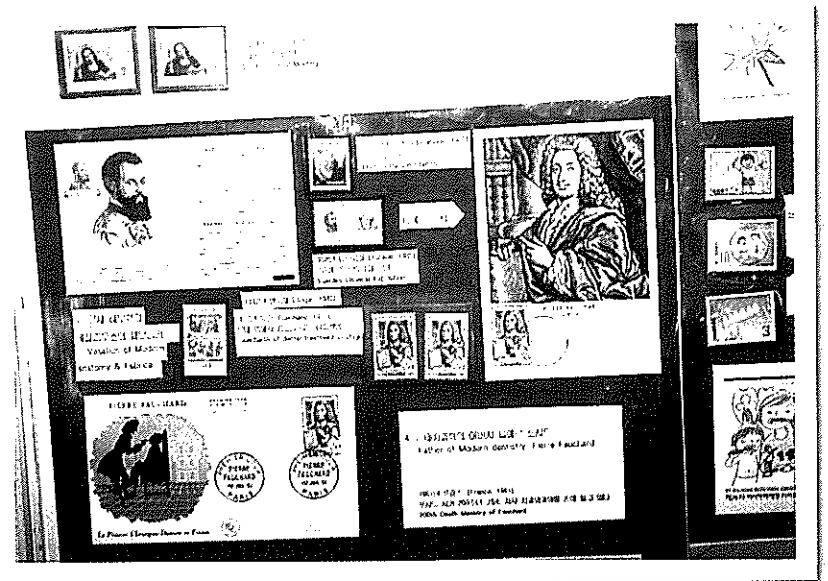
### 포스터 발표

힐튼호텔 2층 중앙복도에 전시됐으며 27일에는 28개, 28일에는 26개의 포스터가 발표됐다.

### 테이블클리닉 - 전국치과대학생 학술경연대회

전국치과대학생 학술경연대회는 학생들의 학술연구분위기를 고양시키고 다른 나라 치과대학생과의 교류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것으로서, 대상은 서울치대 본과 2학년에 재학중인 남세진군이 차지했다.

남세진군은 DSC를 이용한 치과접착용 시멘트의 경화성상 및 반응열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





### 리셉션

11월 27일 오후 6시 힐튼호텔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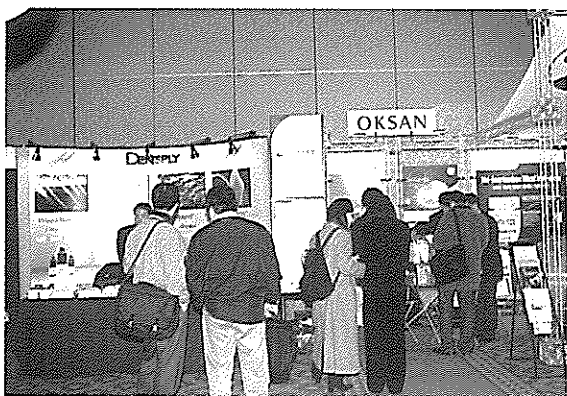


### 테이블 클리닉 - 개원화원 경연대회

테이블클리닉은 힐튼호텔 국화홀에서 진행됐다. 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테이블클리닉상은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로서 올해의 영광은 개교 교합을 동반한 골격성 3급 부정교합 환자를 교정 및 양약수술로 치료한 치험례를 발표한 백철호치과의 백철호 원장에게 돌아갔다.

### 특강, 심포지엄, 일반연제, 최신지견 등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

최신 정보와 다양한 내용을 전할 수 있었다.



### 기자재 전시

기자재 전시는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27일, 28일 양일간 진행됐다.

이번 전시회에는 82개 관련업체가 참석, 1백33개 부스가 설치됐으며 연인원 1만3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호황을 이뤘다. 이날 전시회에서는 신탐이 처음으로 부스를 마련해 동참했으며 최신기자재와 각종 치과관련 품목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.